

太平洋時代下の 韓—中關係改善과 濟州島의 位相變化

— 經濟的 側面을 中心으로 —

金恒元 · 金泰保 · 李萬成

I. 序

작금의 국제정세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들이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이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방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도 국가이익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소련과의 새로운 데탕트를 추구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하에서 태평양연안의 국가권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 마치 21세기에는 세계문명의 중심이 이곳으로 이동할 것이 아닌가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그증거로 「엔고」(圓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일본을 비롯하여, 선진국의 높은 보호무역주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장률을 보여주는 소위 아시아 「4인방」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를, 그리고 최근

들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 지역의 후발신흥공업국가군(NICS)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아세안(ASEAN)국가들을 들고 있다. 최근 미국의 교역량을 보더라도 2.3년전부터 아시아국가들과의 무역인 태평양교역이 유럽국가들과의 대서양 교역을 초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중국이 개방정책을 추진하며 참여하고 있으며, 소련도 아세안국가임을 자처하며 이에 동참하려 하면서 바야흐로 “태평양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하겠다.

특히 중국은 태평양시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4개 경제특구의 설치와 14개 연안도시, 해남도 그리고 요동과 상동반도에 대한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개방정책은 우리의 서남해안 개발정책의 추진과 맞아 떨어져 한-중국간의 관계개선은 계속 되어 갈 것이다.

이미 한-중 관계는 문화와 스포츠 교류는 정상적 궤도위에 들어섰고, 교역역시 88년 말에는 30억불 수준까지 늘어났다. 한-중간의 경제적 관계개선은 앞으로 상호간의 무역사무소 설치의 물론, 한국측의 투자, 합병회사의 설립, 부산과 중국 여러 항구간의 직항로가 열리는 등의 변화 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우리의 북한수용정책과 북한의 개방정책이 연결되어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어 갈 때 한-중 관계개선의 폭과 깊이는 정치적 측면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태평양시대의 전개와 이에 따른 한-중국관계개선의 변화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태평양으로의 전진 창구이자,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는 점으로 인하여 제주도는 위상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다가오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태평양시대와 한-중국 관계개선에 따른 제주도의 미래상 모색과 이에 대한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있어 주인으로서의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하에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 및 전망을 시도해 본 것이다.

II. 太平洋時代의 經濟的 展開

지난 20餘年間に 걸친 韓國을 비롯한 新興工業國, 世界經濟大國으로서의 日本, 그리고 東南亞國家聯合(ASEAN)을 중심으로 하는 東南亞細亞開途國 등의 經濟적 도약으로 인하여 亞洲太平洋地域의 經濟力은 세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급속히 신장되어 이들 亞洲太平洋 國家와 北美 및 太平洋 先進國 사이에 經濟交流와 相互依存關係가 꾸준히 심화되어 왔다. 여기에 中國이 開放化를 추구함에 따라 太平洋沿岸 國家의 經濟活動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¹⁾

이 地域은 최근 經濟的으로 매우 活力에 차 있는데 이는 1970년대에 계속된

〈表1〉 世界 GNP 및 交易現況

(單位：%)

區 分	GNP	交易量(輸入基準)
	1982~86	1982~86
世 界	2.5	3.6
先 進 國 ^{a)}	2.2	3.7
開 途 國	3.1	3.2
(東 아 시 아) ^{b)}	7.9	5.4
(아 프 리 아)	2.9	4.1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 未來에의 挑戰-産業構造變化와 政策對應.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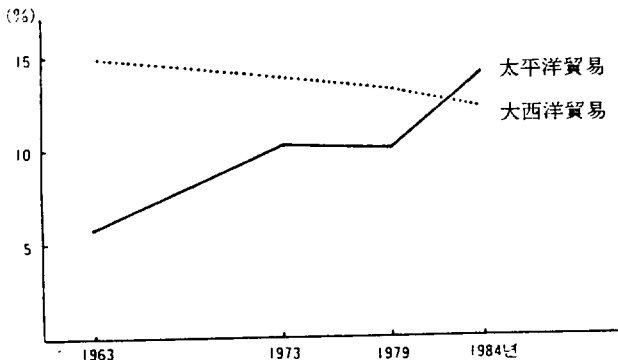
1) 韓國開發研究誌, 「2000年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 1987. pp. 194~195.

太平洋時代下の 韓-中關係改善과 濟州島の 位相變化

이 地域國家들의 급속한 經濟成長이 이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1970년대 이들 國家의 經濟成長率은 두번에 걸친 原油價의 급격한 昂騰과 1970년대 後期에 나타난 世界經濟의 全般的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게 유지되어 왔다.

世界貿易에 있어서도 이 地域國家들의 비중이 높아져 世界貿易의 中心地가 大西洋地域에서 太平洋地域으로 이동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韓國과 대만 등 東南아시아 諸國은 70년대 세계무역 시스템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와중에서도 착실하게 先進國으로 부터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여 工業化를 추진한 결과 工業製品의 수출규모를 크게 확대하였다. 즉 工業製品 전체로 볼 때 아시아諸國의 수출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畵어가 1970년대초 3.3%에서 70년대말에는 6.6%, 86년에는 10.2%로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 83년 이후 회복국면에 접어든 세계무역은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왔는데 아시아諸國의 수출증대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 결과 韓國, 日本 등의 아시아諸國과 美國間에 이루어진 太平洋貿易은 美國, 유럽간에 이루어진 太平洋貿易을 1984년에 처음으로 상회하였다. (도1)

〈圖1〉 太平洋貿易과 大西洋貿易의 推移



資料：日本通商産業省, 「通商白書」, 1985.

이는 1985년 이후의 세계경제에 나타난 原油價格, 金利, 달러가치 등의 低下하는 經濟環境變化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太平洋時代下の 韓-中關係改善과 濟州島の 位相變化

〈表2〉 世界 GDP 成長展望

(단위 : 1980년 不變, 10億달러)

	1985	2010	年平均 增加率(%)			
			1980 ~85	1986 ~91	1992~ 2000	2001~ 2010
世 界	12,997	26,768	2.1	2.7	3.1	2.9
先進國 ¹⁾	8,681	16,790	2.2	2.5	2.8	2.6
美 國	3,041	5,778	2.1	2.7	2.7	2.4
日 本	1,276	2,842	4.3	2.8	3.6	3.2
유 럽	3,783	7,094	1.4	2.3	2.7	2.5
開途國	2,086	5,210	1.4	3.2	4.0	3.6
產油國 ²⁾	582	1,447	1.3	2.5	4.4	3.9
非產油國	1,504	3,673	2.7	3.5	3.9	3.5
(亞洲·太平洋) ³⁾	(301)	(1,024)	(5.2)	(5.7)	(5.0)	(4.6)
共産圈 ⁴⁾	2,230	4,858	2.8	3.1	3.3	3.1
(中共)	(429)	(1,854)	(9.2)	(6.0)	(6.3)	(5.8)

註 : 1) OECD 24개국.

2) OPEC 13개국.

3) 韓國, 臺灣,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泰國, 말레이시아 등 7개국.

4)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東獨, 헝가리, 中共, 폴란드, 루마니아, 蘇聯,
유고슬라비아 등 9개국

資料 : DRI, IBRD, WEFA.

國際競爭力이 향상되어 經常收支의 黑字化傾向이 정착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BRD의 세계경제의 長期的인 展望에 의하면 美國, 유럽 등의 先進國은 경제의 성숙에 따라 나타나는 經濟的 活力의 저하로 낮은 成長率을 보이는 반면 亞洲太平洋地域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 대만 등 新興工業國과 東南亞國家聯合(ASEAN) 諸國 등 開途國들의 성장률은 세계평균 성장률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표2).

이러한 經濟活力의 증대로 인하여 2000년대에는 亞太國들을 중심으로 하여 活力이 넘치는 하나의 太平洋經濟圈이 형성되고 이러한 經濟圈이 世界經濟成長의 中心地(Growth center)로 부상됨에 따라 太平洋時代가 될 전망이다.²⁾ 따라서 21세기는 세계경제활동의 중심이 大西洋의 兩岸으로 부터 太平洋의 兩岸으로 옮겨짐으로써 大西洋國들이 종래 누려왔던 역사상의 지위가 亞太國들에 의해서 자리바꿈되는 太平洋의 時代로 예견되고 있다.

Ⅲ.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전개

1977년 8월 등소평은 黨 제11회 대회에서 건국후 두번째 실각으로부터 재부권되어 黨副主席의 지위를 회복했다. 그러나 그가 전권력자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시대상황에 걸맞지 않는 도식화된 사회주의이념, 관료주의의 타성에 젖어 경직화되어 있는 국가의 제반조직, 그리고 황폐하거나 낙후되어 있는 경제 등에서 초래된 체제의 전반적인 정체성과 비능률성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제의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①먼저 침체되고 낙후되어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②단호한 대외개방정책에 의하여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하고, ③사상을 해방하여 안정과 단결을 실현해야 한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노선과 정책은 등소평의 집권 10여년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어 오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것은 지난1987년 10월에 소집된 중공黨 제13차 전

2) 上掲書, p. 38.

국대표자회의에서도 재확인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노선에 걸맞는 실천적 변화를 10여년동안 겪어와 중국사회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겪어온 체제개혁은 크게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개혁으로 대별될 수 있거니와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개혁과 개방정책은 모택동시대와는 정반대의 논리에 입각하여 중국사회를 가히 혁명적으로 변모시켰다.

농촌에서는 人民公社가 해체되고 농업생산청부제가 도입되었고 상품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농업·부업생산물의 계획계약제가 실시되어 시장의 기능이 확대되어 갔다. 현재 전국 농민가의 98%가 생산청부제를 택하고 있는데 이 정책은 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식량을 증산하는데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¹⁾

한편 공업부문에서는 국영기업외에도 집단(협동조합)경제, 개인경제 등 다양한 소유형태가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기업의 자주적 관리권, 임금(평균주의)제의 폐지, 보상금제의 실시, 상품경제의 도입, 시장메카니즘의 활용 등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제도의 원용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78년 현재 전국 개인경제부문 종업자가 10만명이하였던 것이 85년에는 1천7백만명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新型의 共有制企業으로서 사무원, 노동자가 주주로서 참가하는 〈協力企業〉(小型企業)이 발달하고 있는 한편, 노동자와 국가, 그밖의 사회단체와 더불어 주주가 되는 〈株式企業〉(大型)이 창설되어 그 수는 전국에서 6~7천개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²⁾

이상과 같은 대내적 경제개혁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대외적 경제개방정책이다. 경제발전과 4개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선진기술과 외국자본

1) 宋庭明, 〈中國 8年の 改革을 回顧하며〉, 「北京周報」, 1986年 12月 25日字號, p. 12.

2) 「北京周報」 1986年 12월 30日號 pp. 21~23. 梁好民, “中·蘇의 體制改革路線과 그 限界”, 제주대학교 통일안보연구소 세미나(1988년 6월) 주저논문, p. 8. 에서 재인용.

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교류와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

1979년 7월 中國은 외국자본과 기술의 중국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비롯하여 각종 법령을 제정하였고, 무역관리체제를 분권화하여 지방정부와 개별기업들에게 외화사용권과 외자도입의 심사 및 인가권한을 상당한 정도로 위임하였으며, 경제특구를 설립확대하여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장려하였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외경제 개방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대외 무역은 급신장하였다. 1987년 중국의 총교역량은 약 673억달러로, 이는 대외개방정책이 공식화되었던 1979년과 비교하여 약 1백30%가 증가하였으며, 그것은 대부분 서방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이 중심이 된 것이었다.³⁾

한편,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도 활발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제특구가 설립된 이후 이 지역에서의 외국기업의 직접투자와 대외교역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1979년에는 광둥성의 深圳를 비롯하여 4개 경제특구가 설치되었으나 그후 14개의 연해 항구도시와 해남도의 개방이 확정되었고, 최근에는 요동과 산둥반도 등에 대한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보여준 대담한 경제개혁과 개방은 단순히 경제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정치체제의개혁도 수반되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政經분리의 원칙은 행해지지 못하였고 정치가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많은 理論家들은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개혁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부단히 표명하여 왔다. 즉, 이들은 교조화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혁명을 위한 선동구호로는 매력적일지 모르나 실제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는 제구실을 못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이들 이데올로기의 구조개편과 개별적인 구성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3) 고성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북한”, 『제대신문』, 89년 1월 17일.

등소평은 80년 8월 18일 黨중앙정치국확대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현행 정치체도의 주요한 폐단으로서 <관료주의, 과도한 권력 집중, 가부장적 제도, 간부의 지도직 종신제와 같은 현상들과 갖가지 특권의 현상>을 들고, 그 역사적 원인을 해명하는 한편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⁴⁾

먼저 등소평은 일련의 폐단의 원인을 봉건사상-자본주의 사상-식민지적 노예사상-문화혁명의 영향등을 들고 있다. 그중 자본주의 사상과 제도에 관해서는 이것을 '이기적이며, 사리사욕을 탐하는 사상'이고, '약육강식, 사람을 해치고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는 제도', '금전만능주의' '도덕의 황폐' '정신의 타락'등으로 단순화한다.⁵⁾ 그는 "근년 국제적인 교류의 발전에 따라 외국부르조아지의 부패한 사상작풍과 생활방식의 영향을 받아 서양숭배, 대외아침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부 동지가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생산의 발전과 사회주의 사업의 발전에 유리한 그 개혁을 자본주의적이라고 하여 비판하고 있는데 그것은 틀렸다"라고 그런 비판을 일축했다.⁶⁾

요컨대, 중국의 개혁파들이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이점을 활용하되 부르조아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체제의 개혁인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등소평이 주장하는 정치개혁도 1979년 3월에 발표했던 4개의 기본원칙(사회주의의 길,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 공산당의 지도, 맑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의 견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한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지나친 시도는 어김없이 차단 당하였다.⁷⁾ 예컨대 최근 중국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정치개혁을 연구하는 지식인들이 당에서 제명되고, 학생시위가 강제로 진압되는 경우에서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다.

4) <鄧小平文選>(一九七五~一九八二年). 1983. 北京, p. 287. 梁好民, 前掲論文, p. 9에서 재인용.

5) Ibid. p. 10.

6) Ibid.

7) 鄧小平, "4가지 기본원칙을 견지하자", 「中國革命的 現단계-鄧小平文選」(서울: 일월서각, 1987), p. 164.

지난 84년 12월7일자 人民日報에 발표되었던 「이론과 실제」라는 논평기사에서 인민일보는 “마르크스가 사망한지도 이미 1백1년이 지났고, 그의 저작은 1백년전에 씌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르크스가 사망한 후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이론중에서 어떤 부분은 오늘날에 반드시 타당한 것일 수가 없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논평이 발표된 후 3일만에 이 논평에 과오가 있음을 인정하고 “마르크스·레닌의 저작이 오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정 기사를 실어야만 했던 것이다.

등소평은 ‘社會主義的 民主’를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이 ‘사회주의적 민주’란 바로 앞서의 4개의 기본원칙을 고수하는 선에서 정치부문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 권력집중과 특권등의 부조리를 일소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본방침은 실제 제한적이긴 하지만 1982년 새로 제정공포된 신당헌과 신헌법에 반영되었고 그동안도 부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첫째, 당의일원적 영도원칙이 수정되었다. 1982년의 신당헌에 의하면 당은 모든 부문에서 포괄적인 영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상, 그리고 조직의 영도”에만 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둘째, 당과 국가제도의 영도제도개혁을 단행, 권력집중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즉, 국가주석과 전인대 당무위원회 위원, 당 총서기 그리고 국무원 총리 등의 직권을 재조정하여 당과 국가의 권력이 어느 한 기구와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셋째, 당과 국가의 각급 단위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토론을 활성화하고, 투표에 의한 정책결정, 선거제도의 보완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당의 중앙위원선출과정에서까지 差額選舉制(선출되어야 할 정원보다 더 많은 후보자를 제시하는 방식)를 도입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형식적인 선거개념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개혁은 사실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는데는 큰 기여를 했으며 지난 시기에 비한다면 과히 혁명적인 변화라할 만

하다. 요컨대 오늘날 중국에서 일고 있는 개혁정치 의 물결은 한마디로 사회주의 이념과 제도의 기본구조를 부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면적인 개혁과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모택동시대와는 전혀 다른 〈中國特色的 社會主義〉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결론 지을수 있겠다.⁸⁾

IV. 한-중국 관계개선의 변화

1. 정치적 측면

지난 70년대 말부터 간접교역의 형태로 시작된 한·중관계개선의 징후는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농후해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1987년말 현재 한·중교역은 약 20억달러에 달하며, 특히 한국등을 주 대상으로하는 山東半島와 膠東半島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얼마없어 무역사무소도 설치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편 이와 더불어 스포츠 교류와 친척방문, 그리고 제3세계에서나마 외교관·학자·문화계인사들간의 상호 접촉도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근거에 비추어 일련의 학자들은 한·중관계는 더욱 발전적 개선의 여지를 갖고 있다고 낙관적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다. 한·중간의 경제·사회문화적 관계개선에 대해서는 후술될 것이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비정치적 관계개선이 과연 정치적 관계개선으로까지 전이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경제결정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칼 도이취의 「사회커뮤니케이션이론」이라든가 「기능적 통합이론」등에 의하면 이러한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는 정치적 통합을 유도하는 것으로 본다.⁹⁾ 따라서 한·중관계도 각자 자국의 실리확보를 위한 상호의존적 교류의 추진은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8) 中共中央黨公報室, 1982. 編建設有中國 特色的 社會主義的 指南, 北京, 中共中央黨 出版社, p. 23.

9) 김동성, "한-중관계 개선의 변화와 평화통일 외교", 「현대사회」, 1988년 봄호, No. 29. p. 75.

의 평화와 긴장완화라는 가치를 인정케 될 것임으로 점차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협상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추세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않으나, 보다 현실적인 장애요소에 안착해 보기로 한다면 지나친 낙관적 기대는 재고되어야 할 것 같다. 한국은 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북방 정책은 그 구체적인 창사진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정부와 민간차원의 이해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무역을 통한 경제적 실리확보와 궁극적으로는 중·소를 활용한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조성과 평화통일외교에 목표를 두고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한·중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의 경우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차원에서의 관계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중국의 경우 한·중간의 경제 및 비정치적 교류를 정치적 관계개선이라는 목적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물론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희망하고 있음은 이미 공식화된 대외정책이다.²⁾ 그러나 그들은 분명한 政經分離의 원칙하에 지금까지의 한·중교류도 어디까지나 경제적 실리차원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중국의 경우 대외관계에서 정치와 비정치부문 특히 경제부문을 구분하여 조정해온 역사적 사례는 많다. 대표적인 것으로 중·일간 공식적 국교관계가 없었고 냉전기간이었음에도 1960년대 전반기동안 「友好貿易」 혹은 「L·T무역」을 통해 무역관계를 맺어왔다.³⁾ 중국은 경제관계를 오직 자신들의 필요시에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해 온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영역과 비정치적 영역을 동시에 같은 선상에서 고려하려는 한국의 이익과 입장은 중국이 계속하는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할 경우에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것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된다.

한편으로 만일 한·중관계가 정치적 관계로까지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

2) Ibid. p. 74.

3) A. Doak Barnett, China and the Major Powers in East Asia(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1977), p. 107.

더라도 중국이 과연 한국을 진정한 정치적 파트너로 인식할 것인가하는 것도 현재 까지로서는 의문시되는 점이다. 역시 후술되겠지만 중국은 한국을 경제적 파트너로서는 충분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을 과연 「1 : 1」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상대주역으로 보느냐 아니면 미국과의 연장선상에 놓고 보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 유지라는 높은 목표때문에 항시 남북한문제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간의 고위회담의 의제가 되어왔고, 한국 또한 이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서 어쩌면 바람직한 것인양 인정해 왔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을 통하여 남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세를 심어준 것일 수도 있다. 1986년 10월의 美와인버거가 北京을 방문한데 이어 1987년 4월에 발표된 미국의 對北한 「人道主義商品 교류허가」 방침발표는 결국 미·중간에 한반도문제에 대한 조정의지를 표명한 사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對한국입장이라는 것은 개별적 차원에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정치적 변화를 구한다는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 된다. 오히려 한·중관계개선의 정치적 의미가 중국의 對美, 對北韓 정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

한·중관계의 발전 및 정상화가가능성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국의 對北韓 정책에 있다. 우선 비정치적 부문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중간의 직접적 교역관계 수립과 사회·문화 등의 활발한 자유교류의 발전은 북한의 상대적 고립과 중·북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에 관련된 과거의 사실로, 이미 1982년에 한·중간 간접교역의 증대에 북한은 엄중한 항의를 하였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간접교역은 계속 증가되어 왔고,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對중국 비난과 항의를 한 사실은 찾기가 힘들다. 아마도 이후 중국의 對北한 지원, 즉 군사무기 판매 혹은 경제적 지원 그리고 김정일 권력승계 체제인정 등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상쇄되어 나가지 않았는가 추리해 볼 수 있겠다. 다음

4) 김동성, op. cit., p. 77

으로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의 중국참가문제으로써 중국은 올림픽정신과 국제적 관행을 내걸어 북한의 압력을 무시할 수 있었다. 한편 한·중간 친척 방문 및 스포츠 그리고 국제회의 참가를 통한 교류부문에 있어서도 비정치적 부문이란 이유로 중·북한간에는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정치적 부문에서의 교류는 중국의 對북한지원, 국제관행, 그리고 인도주의와 합리성이란 근거위에서 제약을 이미 극복해온 상태이며, 앞으로의 이러한 비정치적부문에서의 교류증대는 중국의 국익에 따른 의지여하에 따라 북한을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서 반대급부와 설득에 의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부문의 경우는 아직으로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북한이 당사자가 아닌 한·중을 포함하는 어떠한 정치적 교섭도 결국 그것은 북한을 외교적 고립상태로 몰아 넣거나, 그의 고립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것이 된다. 따라서 북한은 고립에서의 탈피, 혹은 보상을 위해 소련과의 새로운 형태의 외교적 밀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되며, 때에 따라서 중국·북한간은 극히 불편한 관계가 될 것이다. 한·중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중국이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과 같다.

이상의 몇가지점들은 한·중관계를 정치적 수준에서의 관계개선으로 전이 혹은 발전에 있어서 현실적 장애요소로 제기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약조건을 여하히 제거시켜 나갈수만 있다면 한·중간의 정치적 관계 수립도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⁵⁾

첫째, 한·중관계의 발전에 대하여 한국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평화, 공동경제이익 및 민족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어진 국내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설정한 다음에 가장 적절한 수단을 찾는 노력, 즉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예컨대, 경제적 교류를 증진하더라도 그것의 단기적 이익보다는 우선 중국의 경제가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피할 수 없고 나아가 정치적 고려까지도 해야만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안병준, "한-중관계의 현주소", 「조선일보」, 1989년 2월.

둘째는 한국의 의지로만 될 문제는 아니나 한·중관계 발전에 주는 북한의 영향을 고려하여 미·일로 하여금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유도함이 좋을 것이다. 이는 예전부터 논의되어온 「교차승인」을 말한다.

북한의 영향을 제거시켜가는 데는 중국·소련간의 관계증진도 도움을 줄 것이다. 다시말해 중국과 소련이 어떠한 중요한 국제적 이슈(예컨대, 한반도의 평화, 안보문제 등)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사전에 합의할 수만 있다면 중국의 행동은 보다 더 자율적이고 탄력적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남북한간에 독자적으로 관계 정상화가 이룩된다면 더 좋을 나위가 없다.

2. 經濟的 側面

中國은 현대화작업을 對內的 經濟改革과 對外的 開放政策을 동시에 전개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對內的으로 농업과 工業에 있어서 生産責任制와 利潤概念을 도입 실시함으로써 生産意欲을 고취시켜 活性化를 기하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金融體制, 價格體系, 勞動制度 및 일부 市場經濟體制의 도입등 일련의 革新을 단행하여 生産의 劃期的인 증대를 시도하고 있다.¹⁾

對外的으로는 西歐先進諸國과의 經濟協力을 증진 강화하고 開發途上國과도 긴밀한 經濟關係를 유지함으로써 수출 촉진을 통해 중국의 생산력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획득하는데 그 目標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출촉진 정책의 내용을 보면 전통적인 輸出産業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수출상품구조를 附加價值가 높은 工產品 위주로 고도화 하는데 있다.²⁾ 이에 따라 무역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對外 貿易部에서 장악하고 있던

1) 李相俊, 「中共의 經濟運營과 對外開放政策의 實相」, 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研究센터 1985, pp. 21~45.

2) 上揭書, pp. 53~55.

무역권한을 각 공업, 각 지방정부 각 생산단위로 이양하였다. 또한 貿易, 投資 및 外換關係法을 개정하고 經濟特區 및 經濟開發區를 설치하여 外國과의 交易擴大, 資本 및 技術의 이전을 수용하는 태세를 정비하였다.³⁾

이와 같은 中國의 對外開放政策의 결과 中國의 貿易은 지난 1961년 이후 20 배의 증가를 가져왔다. 中國貿易의 성장추이를 보면 中國의 對美·對日關係改善이 무역규모의 확대로 나타나 1973년 이후 輸出入의 양면에서 비약적인 신장을 가져왔다. 中國貿易의 성장추이를 보면 中國의 對美·對日關係改善이 무역규모의 확대로 나타나 1973년 이후 輸出入의 양면에서 비약적인 신장을 가져왔다. 1978년 華國鋒체제하에서 開放政策을 기조로 한 經濟發展計劃을 채택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中國의 對外經濟關係는 대폭 증대되었고 이어서 鄧小平에 의해 開放政策이 과감하게 추진됨에 따라 무역총액의 증가현상이 괄목하게 증가하면서 계속되고 있다. (표3)

〈表3〉 中國의 輸出入總括表

(單位: 弗)

年	貿易總額	輸出額	輸入額	輸出入差額
1961	29.36	14.91	14.45	0.45
1965	46.14	23.66	22.48	1.18
1970	45.86	22.60	23.26	-0.66
1973	109.76	58.19	51.57	6.62
1976	134.33	68.55	65.78	2.77
1978	206.38	97.45	108.93	-11.48
1980	378.22	182.72	195.50	-12.78
1981	403.75	208.93	194.82	14.11
1982	392.97	218.19	174.78	43.42
1983	407.27	221.97	185.30	36.67
1984	497.72	244.16	253.56	9.40
1985	602.46	259.15	343.31	-84.10
1986	600.97	270.14	330.83	-60.69

資料: 中國對外 經濟貿易年鑑 1987年度版, 中國對外經濟貿易 年鑑編輯委員會刊.

3) 上掲書, pp. 53~84.

中國의 輸出入商品構造를 보면 수출상품구조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工産品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반면 1차산품의 비중은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산품중에서도 輕工業 및 섬유산업제품의 비중은 1983년 34.7%로부터 1986년에는 43.2%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수입상품구조는 工業製品輸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重化學製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中國의 近代化의 주축이 重化學工業에 두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표5)

韓·中間의 經濟關係를 파악하기 위하여 韓·中間의 交易實態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中國과의 總交易 규모는 1979년의 19백만\$에서 1986년 약 14억불\$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韓·中間의 교역은 中國의 국내사정에 따른 정책조정, 그리고 北韓과의 미묘한 관계 등으로 인해 신장율이 다소 浮沈을 보이고 있으나 同期間중 年平均 75%에 달하였다. (표6) 이를 더 구체적으로 韓國의 對中國 輸出의 主要品目を 보면 1984년 섬유사와 브라운관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986년에 철강과 인조섬유직물이 주종을 이루어 증화학제품의 對中國 수출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표7) 한편 우리나라의 對中國 輸入의 주요 품목을 보면 아직 農産物原料와 石炭 등에 그치고 있다. (표8)

지금까지 분석한 韓·中間의 교역관계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兩國間의 교역을 주로 韓國이 공산품을 수출하고 原資材를 수입하는 垂直的 分業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섬유류 산업분야에서는 양국간에 활발한 産業內 分業, 곧 水平的 分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직적 분업형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며 中國의 工業化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수평적 분업이 이루어지는 산업분야가 늘어날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같은 分析에 의하여 장래 韓·中間의 교역유망분야를 보면 中國經濟가 수요하게 될 분야와 관련한 韓國經濟의 비교우위분야를 고려하여 예상해볼 때 韓·中의 무역관계는 한국의 농업과 중공의 농업 및 광업간의 수직적 분업관계, 한국의 자본 및 기술집약적 제품과 중공의 노동집약적 제품간의 산업내

(表4) 輸出品構成(國際貿易標準分類 S.I.T.C)

(單位: 美貨億弗)

年	輸出總額		一次產品		1. 食品		2. 食料及煙草		3. 非食用原料		4. 礦物性燃料		5. 動植物油脂	
	金額	百分比	金額	百分比	金額	百分比	金額	百分比	金額	百分比	金額	百分比	金額	百分比
1965	22.28	51.2	11.41	17.8	6.94	31.1	0.08	0.4	3.37	15.1	0.68	3.1	0.34	1.5
1970	22.60	53.5	12.10	12.8	7.19	31.8	0.17	0.7	3.93	17.4	0.63	2.8	0.18	0.8
1975	72.64	56.4	40.98	28.4	20.65	28.4	0.71	1.0	8.14	11.2	10.93	15.0	0.55	0.8
1978	97.45	52.16	52.16	23.8	23.16	23.8	0.71	0.7	14.17	14.5	13.45	13.8	0.67	0.7
1980	182.72	53.4	97.62	17.3	31.54	17.3	0.92	0.5	18.68	10.2	45.98	25.1	0.60	0.3
1981	208.93	49.6	103.60	14.7	30.71	14.7	0.85	0.4	20.62	9.9	50.54	24.2	0.88	0.4
1982	218.19	48.0	104.63	14.2	30.94	14.2	0.93	0.4	18.45	8.5	53.53	24.5	0.78	0.4
1983	221.97	46.2	102.65	14.5	32.24	14.5	1.16	0.5	21.04	9.5	47.01	21.2	0.20	0.5
1984	244.16	49.9	121.79	14.4	35.09	14.4	1.04	0.4	23.60	9.7	60.62	24.8	1.44	0.6
1985	259.15	54.2	140.34	15.6	40.27	15.6	1.60	0.6	23.82	9.2	73.34	28.3	1.31	0.5
1986	270.14	43.7	117.92	18.5	49.86	18.5	1.91	0.7	29.20	10.8	35.82	13.3	1.13	0.4

年	2次製品		1. 重化工製品		① 化工品及關聯製品		② 原料別製品		④ 機械及運搬機器		④ 輕工業及紡織製品	
	金額	百分比	金額	百分比	金額	百分比	金額	百分比	金額	百分比	金額	百分比
1965	10.87	48.8	3.96	17.8	0.53	2.4	1.77	7.9	1.66	7.5	6.91	31.0
1970	10.50	46.5	2.89	12.8	0.67	2.9	1.53	6.8	0.69	3.1	7.61	33.7
1975	31.66	43.6	9.05	12.5	2.14	3.0	4.47	6.1	2.44	3.4	22.61	31.1
1978	45.29	46.5	10.10	10.4	2.34	2.4	4.44	4.6	3.32	3.4	35.19	36.1
1980	85.10	46.5	23.57	12.9	6.30	3.4	8.76	4.7	8.51	8.5	61.53	33.7
1981	105.33	50.4	37.98	18.2	6.99	3.4	13.22	6.3	17.77	14.4	67.35	32.2
1982	113.56	52.0	49.11	22.5	6.24	2.8	11.53	5.3	31.34	14.9	64.45	29.5
1983	119.32	53.8	48.71	22.0	6.53	3.0	9.08	4.1	33.10	14.9	70.61	31.8
1984	122.37	50.1	46.99	19.2	7.72	3.2	8.15	3.3	31.12	12.7	75.38	30.9
1985	118.81	45.8	36.05	13.9	5.95	2.3	8.16	3.1	21.94	8.5	82.76	31.9
1986	152.22	56.3	55.29	20.4	8.28	3.0	10.80	4.0	36.21	13.4	96.93	33.9

出所: 中國對外經貿易年鑑 1987年度版

(表5) 輸入商品構成國際貿易標準分類 SITC

(單位：美貨億弗)

項 目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金額	百分比	金額	百分比	金額	百分比	金額	百分比	金額	百分比	金額	百分比
輸入總額	194.82	100.0	174.78	100.0	185.30	100.0	253.56	100.0	343.31	100.0	330.83	100.0
1次產品	78.63	40.4	73.25	41.9	54.38	29.3	56.76	22.4	58.59	17.1	49.28	14.9
1. 食品	38.46	19.7	39.07	22.4	28.44	15.3	20.42	8.1	15.63	4.6	16.36	5.0
2. 食料及煙草	0.87	0.4	0.84	0.5	0.25	0.1	0.45	0.2	1.69	0.5	1.49	0.4
3. 非食用原料	37.47	19.3	30.31	17.3	23.52	12.7	33.95	13.4	37.58	11.0	25.27	7.6
4. 礦物燃料	0.71	0.4	2.07	1.2	1.51	0.8	1.14	0.4	2.57	0.7	4.62	1.4
5. 動植物油脂	1.12	0.6	0.96	0.5	0.66	0.4	0.80	0.3	1.12	0.3	1.54	0.5
工業製品	116.19	59.6	101.53	58.1	130.92	70.7	196.80	77.6	284.72	82.9	281.55	85.1
1. 重化工製品	96.68	49.6	87.92	50.3	117.03	63.2	176.66	69.7	251.43	73.2	238.73	72.2
(1) 化工製品 及 礦運製品	24.73	12.7	27.88	16.0	27.08	14.6	43.89	17.3	38.33	11.1	31.37	9.5
(2) 原料別製品	22.77	11.7	25.99	14.9	53.16	28.7	70.22	27.7	88.48	25.8	81.45	24.6
(3) 機械 及 運輸機器	49.18	25.2	34.05	19.4	36.79	19.9	62.55	24.7	124.62	36.3	126.91	38.1
2. 輕工業 及 紡織製品	19.51	10.0	13.61	7.8	13.89	7.5	20.14	7.9	33.29	9.7	42.82	12.9

出所：中國對外貿易年鑑 1987年度版

太平洋時代下の 韓-中關係改善と 濟州島の 位相變化

〈表6〉 韓國の 對中共 交易現況(年度別)

(單位：百萬弗，%)

年度	區分	總交易規模	輸 出	輸 入	収支(収支率)
'79		18.8	4.0	14.8	-10.8
'80		187.9	115.0	72.9	42.1
		(900.8)	(2,803.3)	(392.0)	(1 : 0.63)
'81		352.7	205.0	147.8	57.2
		(87.7)	(78.2)	(102.7)	(1 : 0.72)
'82		128.8	48.0	80.8	-31.2
		(-63.5)	(-76.6)	(-45.5)	(1 : 1.68)
'83		133.9	51.0	82.6	-31.3
		(4.0)	(6.9)	(2.2)	(1 : 1.61)
'84		461.7	229.0	232.6	-3.4
		(244.8)	(346.4)	(181.6)	(1 : 1.01)
'85		1,291.8	682.8	607.0	73.8
		(179.8)	(198.2)	(161.8)	(1 : 0.89)
'86		1,395.4	714.9	680.5	34.4
		(1.08)	(1.05)	(1.12)	(1 : 0.95)

註：1. 資料：KOTRA 實查統計

2. ()內は 前年對比 増減率%

資料：吳鐵龍，韓中關係現況，88.2. 韓中研究會

〈丑7〉 韓國의 對中國 輸出品目 推移比較

1984年度 輸出品		1986年度 輸出品	
品 目	比 重	品 目	比 重
섬 유 사(나일론)	61.8	철 강	42.6
열 전 자 관	12.9	인 조 장 섬 유 직 물	15.3
칼 라 T V	8.5	열 전 자 관	12.9
합 섬 단 섬 유	7.6	폴 리 에 틸 렌	5.1
종 이 , 판 지	1.5	폐 늘 수 지	2.8
석 면	0.9	인 조 단 섬 유	1.9
무 기 화 학 물	0.8	종 이 , 판 지	1.7
유 기 화 학 물	0.8	비 료	1.7
산 업 용 일 반 기 계	0.7	탄 화 수 소	1.6
잡 계 품(라이터)	0.5	냉 장 고	1.1
사 무 용 기 계	0.4	타 이 어	0.9

* 調査對象：特殊地域 貿易 登錄業體 637個社

水平分業關係, 한국의 가공형공업과 중국의 소재형공업간의 가공도에 따른 수평적 분업관계에 기초하여⁴⁾ 對中國 수출은 정밀기계, 공작기계,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자동차산업 및 그 부품산업, 산업용전자기기, 의료기기산업, 정밀화학분야 및 철강공업 등이 유망한 분야 韓國의 對中國 輸入有望分野

4) 李康龍, "中國의 對外開放과 韓國經濟", 「中共經濟의 對外開放과 西海岸時代」, 韓南大出版部, 1988, p. 83.

太平洋時代下の 韓-中關係改善과 濟州島의 位相變化

〈表8〉 韓國의 對中國 輸出入(品目別: 1986年)

(單位: 百萬弗)

輸 出				輸 入			
品 目	金 額	構 成 比	品 目	金 額	構 成 比		
總 計	549.9	100.0	總 計	722.8	100.0		
철 강	234.4	42.6	옥 수 수	119.4	16.5		
인 조 장 섬 유 직 물	84.2	15.3	생 사 류	117.4	16.2		
열 전 자 관 (브라운관)	84.0	15.3	오 일 케 익 (油類)	104.6	14.4		
플 리 에 틸 렌	28.2	5.1	석 탄	79.8	11.0		
펠 놀 수 지	15.5	2.8	면	79.1	10.9		
인 조 탄 섬 유	10.4	1.9	인 조 섬 유 사	60.9	8.4		
지 와 판 지 (금박지)	9.6	1.7	아 마 사 , 라 미 사	21.4	3.0		
비 료	9.5	1.7	메 밀 , 조 (울 무)	18.4	2.5		
탄 화 수 소	6.6	1.6	견 직 물	17.4	2.4		
냉 장 고	6.0	1.1	인 조 섬 유 직 물	12.1	1.7		
타 이 어	5.0	0.9	석 유 , 역 청 유	11.8	1.6		

는 석탄, 석유, 석유화학제품, 섬유류, 의류, 신발, 기계 및 기계부품, 화학 제품, 철강제품 등으로 이들 제품을 중심으로 한 상호 교역을 통해 兩國間的 무역은 확대를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太平洋時代下の 韓-中關係改善과 濟州島の 位相變化

韓·中間의 經濟關係는 貿易關係 이외에도 技術協力, 直接投資의 가능성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中國이 경제발전의 과제로서 내세우고 있는 4개 現代化 노선에는 科學技術의 現代化가 그 하나다. 그리하여 中國은 1979년 이후 自國에 꼭 필요한, 그리고 흡수가 가능한 核心技術만을 도입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中國의 技術導入現況을 보면 1973~1982년간 기계, 전자부문의 첨단기술과 에너지분야의 기술도입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1979년 이후 기계, 전자부문의 기술도입이 매우 괄목하게 이루어졌다. (표9) 따라서 韓·中間의 技術協力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中國의 生産要素賦存도와 관련하여 適正技術이 무엇이나에 있다. 先進國技術이 상대적으로 노동을 덜 사용하고 자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을 直輸入하는 경우 中國의 資源配分을 왜곡시켜 오히려 國家經濟에 부적정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韓國이 선진국으로부터 도입·소화하여 土着化한 기술과 自體로 개발한 기술은 中間技術(intermediate technology)로서 한국의 요소부존도와 한국기업의 技術賦存도에 맞을 뿐만 아니라 韓國市場의 성격, 韓國消費者의 기

〈表9〉 中國의 部門別 技術導入 現況

(단위: 건)

導入形態	期間	十年合計	1973-78	1979-82	後四年/前六年
合 計		610	225	385	1.71
1. 에 너 지		106	69	37	0.54
2. 鐵 鋼		75	21	54	2.57
3. 化 工		78	52	26	0.50
4. 機 械·電 子		227	35	192	5.49
5. 輕 工 業·織 維		62	35	27	0.77
6. 其 他		62	13	49	3.77

資料: 「國際貿易」, 1983. 12

호 등에 적합한 것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자본이 부족하다는 要素賦存度의 측면과 歷史와 傳統, 소비자의 관습과 기호 등의 文化的 環境이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韓國의 技術은 中國의 經濟發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⁵⁾ 그러므로 품질경쟁력이 뛰어난 신발, 의류, 봉제완구류, 가죽제품류 등의 경공업관련 분야와 1980년대에 많은 기술 축적이 이루어진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류 분야에서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韓·中國間 經濟協力の 方案으로 直接投資를 고려할 때 中國이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勞動力, 資源 등의 생산요소와 韓國이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 開發經驗, 資本 등의 생산요소를 가장 이상적이고 經濟的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韓·中間의 直接投資라 할 수 있다. 中國은 現代化計劃의 추진을 위해 外國의 資本과 技術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珠海, 深圳, 汕頭, 廈門 등 4개의 經濟特區, 上海, 天津, 大連, 廣州 등의 14개 經濟開發區를 지정하여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外國企業의 直接投資를 장려하고 있는데⁶⁾ 太平洋時代의 同半者로서 協力關係를 유지하기 위하여 韓·中間의 直接投資가 바람직한 것으로 전망된다.

V. 經濟的 側面에서 본 濟州道の 位相變化

濟州道는 제1차 및 제2차 國土綜合開發計劃上的의 1개 圈域 및 10大 觀光圈의 하나로 韓半島의 西南端인 南海海上에 위치한 國內 최대의 島嶼로서 東徑 126° 1'~126°58', 北緯 33°10'~33°51'에 걸쳐 있으며 총면적은 1,819㎢로 南韓面積 98,447㎢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本道の 人口는 1986년말 현재 約 495천명으로서 全國人口의 약 1.2%를 차

5) 李鍾燃, 「韓·中共 經濟協力の 可能性 分析」, 大韓商工會議所, 1987, pp. 119~121.

6) 上揭書, pp. 123~124.

太平洋時代下の 韓-中關係改善과 濟州島の 位相變化

지하고 있으며 1973년에서 1986년간 年平均 增加率 1.4%를 기록하여 全國平均 1.2%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人口密度는 전국 평균 397人/㎢보다 낮은 272人/㎢로 나타나고 있다. (표10)

〈表10〉 人口推移

(單位: 人, %)

年度	人		口	人口增加率	人口密度
	男	女	計		
1973	187,820	220,630	390,450	1.5	225.
1976	203,612	217,818	422,830	2.1	231.2
1979	221,842	235,146	456,988	2.99	250.4
1982	230,767	243,200	473,967	2.3	260.
1984	235,703	246,328	482,031	0.87	264.
1986	242,369	253,599	495,968	1.33	272.

자료: 제주도 통계연보, 1974~1987

제주지역의 經濟活動人口는 1973년 172천명이던 것이 1986년 202천명으로 약 17% 정도 증가에 그쳤는데 이를 産業別 構成比로 보면, 1973년의 경우 農林水産業이 81.3%, 鑛工業이 3.5%,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비스業이 15.2%이던 것이 1986년말 현재 농림수산업이 58.2%, 광공업이 3.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38.7%로 나타나 農林水産業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비스業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濟州地域의 地域總生産(GRP)은 1973년 516억원이던 것이 1986년 9,537억원으로 18배 증가하였는데 이를 産業別 構成比로 보면 1973년의 농림수산업이 51.8%, 광공업이 7.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40.5%이던 것이 1986년에는 농림수산업이 42.1%, 광공업이 4.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53.8%를 차지하여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12)

太平洋時代下の 韓-中關係改善과 濟州島の 位相變化

〈表11〉 經濟活動人口 및 産業別 就業構造

(單位：千人, %)

産業別 年度	經濟活動人口	全 産 業	農林水産業	鑛 工 業	社會開發資本 및 其他서비스
1973	172	171	139(81.3)	6(3.5)	26(15.2)
1976	180	180	143(79.4)	6(3.4)	31(17.2)
1979	180	180	125(69.9)	6(3.4)	35(27.2)
1982	191	191	134(70.1)	6(3.1)	48(26.8)
1984	189	185	112(60.7)	5(3.0)	67(36.3)
1986	202	199	116(58.2)	6(3.1)	77(38.7)

자료：제주도 통계연보, 1974~1987

〈表12〉 地域住民 總生産(GRP)

(單位：百萬元, %)

産業別 年度	農 林 漁 業	鑛 工 業	社會間接資本 및 其 他	地域住民總生産
1973	27,776(51.8)	3,962(7.7)	20,955(40.5)	51,693(100)
1976	60,041(50.1)	3,029(2.5)	56,689(47.4)	119,759(100)
1979	129,667(41.9)	14,720(3.9)	179,226(54.2)	296,613(100)
1982	162,576(35)	20,807(4.2)	294,190(60.5)	489,573(100)
1984	271,499(44.3)	22,748(3.9)	317,260(51.8)	611,507(100)
1986	402,268(42.1)	38,053(4.1)	513,422(53.8)	953,743(100)

자료：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현황 1974~1987

제주도의 輸出은 1973년 5,097천\$ 이던 것이 1986년 28,951천\$로서 5.6배 만큼 증가하였는데 이를 品目別로 본다면 水産物 74%인 21,435천\$, 工産品이 25.6%인 6,798천\$, 林産物이 3.4%인 718\$천\$로 되어 있어 제주도 수출은 대부분 水産物에 의존되어 있다.

〈表13〉 年度別 輸出實績

(單位:千\$, %)

年 度	實 績	品 目 別 實 績				
		水 産 物	農 産 物	畜 産 物	林 産 物	工 産 品
1973	5,097(100)	3,274(64.0)	31(0.6)	1,307(25.6)	478(9.3)	6(0.1)
1976	10,939(100)	7,874(71.9)	916(8.3)	973(8.9)	548(5.0)	628(5.7)
1979	15,626(100)	13257(84.8)	284(0.2)	166(0.1)	299(0.2)	1,586(10.1)
1982	18,964(100)	15,972(84.2)	28(0.1)	63(0.4)	555(3)	2,348(13)
1984	23,755(100)	19063(80.2)	-	-	763(3.2)	3,929(14.5)
1986	28,951(100)	21435(74.0)	-	-	718(3.4)	6,798(25.6)

자료: 제주도 통계연보, 1974~1987

일반적으로 한 地域의 經濟成長은 국민경제가 수요하는 재화와 용역의 生産能力, 그것들이 다른 지역에 대하여 比較優位의 立場에서 수출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증진된다.¹⁾ 지역의 경제성장은 지역의 基本産業의 성장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것으로 基本産業比重이 補助産業의 비중보다 큰 경우 그 지역은 성장하며 반대인 경우 침체한다. 따라서 濟州地域經濟의 長期的인 變化를 展望하는 경우 他地域보다 유리한 立場에 있는 산업부문과 이의 개발전략의 모색을 지역의 自然的 및 社會經濟的 立地條件에 의해 검토된 가운데 지역경제의 成長潛在力이 분석되어야 한다.

濟州地域의 經濟構造를 분석한 결과²⁾ 農業, 水産業, 飲食宿泊業 및 運輸業 등의 觀光産業이 지역경제의 基本産業(basic industry)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1) H, Perloff and L, Wingo, "Natural Resource Endowment and Refivnal Economic Growth", J. Friedmann (ed) *Regional Policy*, New York, the MIT Precc 1975, p. 316.

2) 金泰保, "濟州地域經濟의 構造의 特性과 産業開發戰略에 대한 研究", 「論文集」 제 집, 濟州大學校, 19 , pp.

경제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농업과 수산업은 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나 관광산업은 꾸준하게 성장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立地條件上 육지부와 격리되어 交通立地的인 제약과 可用水資源確保의 곤란, 지하자원의 결핍 등 工業立地上 불리한 여건으로 工業開發에 의한 地域經濟成長을 기대할 수가 없다.

농업에 있어서도 심한 바람과 무수한 돌이 섞여 있는 토양조건과 農業用水難 등에 의해 그 생산성이 낮다. 다만 종래 식량작물 위주의 생산에서 수익성이 높은 감귤과 특용작물로의 전환이 시도되어 지역경제성장을 거두었으나 農產物輸入開放 등에 의해 곤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업에 있어서도 근래에 와서 濟州港擴張開發事業을 비롯하여 생산, 한림 등의 漁業前進基地의 整備에 따라 어업환경의 개선이 있었으나 대부분 5톤이하의 小型漁船에 의존하여 어업활동을 하고 있어 지역경제성장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경제의 長期展望을 해볼 때 제조업의 경우 構造的 脆弱性과 규모의 零細性, 경영의 落後性을 띠고 있고, 농수산업에 있어서도 수익성 높은 감귤 특용작물로의 전환과 漁業前進基地의 개발에 의한 어업환경의 개선에 의해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여 왔으나 유통의 不安定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경제의 成長潛在力은 국내 他地域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우위에 있는 부문인 觀光産業에 있다.³⁾

지금까지 分析된 濟州地域經濟의 構造的 特性和 관련하여 韓·中間經濟協力을 통해서 볼 때, 현시점에서 中國과 濟州道間을 연결시켜줄 끈은 대체로 회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中國과 濟州道 開發問題는 단기적 차원에서의 貿易중심 거론보다는 兩側의 개발과 發展의 추세에 따른 長期的 차원에서의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밖에 없다.⁴⁾

3) 上揭論文, p.

4) 金東成, “對中共 接近과 濟州開發의 未來”, 「제주개발에 대한 학술 세미나: 제주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88. pp. 23~24.

따라서 濟州地域經濟의 構造的 特性과 自然 및 社會經濟的 立地條件 등을 고려하여 볼 때 對中共과의 接近可能性은 觀光, 水產業 및 交通分野에서 찾아야 한다. 濟州도와 中共과의 經濟的 關係에서 비교적 展望이 밝은 분야가 觀光分野이다.

濟州道는 1970년대초이래 觀光主導型 地域開發事業을 추진하기 위한 濟州道觀光綜合開發計劃(1973~1982)을 수립·추진하였다. 이 개발계획에 따라 中文觀光團地 基盤造成工事, 해수욕장 정비 관광지개발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제주공항, 제주항의 확장 및 카페리 취항, 간선도로의 포장, 통신망의 확충 등 각종 基盤施設이 확충·정비됨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國際觀光地로 조성한다는 目標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으나 濟州觀光은 어느 정도의 受容能力을 갖추게 되었다.⁵⁾

1985년 확정되어 1991년을목표연도로 하는 特定地域 濟州道綜合開發計劃에서도 총투자사업비 6,548억원을 투자하여 中文地區, 城山浦地區 및 表善地區의 3개 大團地를 집중 개발하되 中文地區는 國際觀光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제수준의 관광지로 개발하고, 城山浦地區는 長期滯留型의 관광위락시설을 설치하여 東部觀光圈의 중심지로 역할할 수 있는 中樞의 海洋觀光團地로 개발하며, 表善地區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특유의 濟州民俗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규모 民俗慰樂團地로 개발하도록 하고⁶⁾ 있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經由型觀光地로 西歸浦, 江汀, 돈네코, 사라봉, 용연, 함덕, 단장굴, 송당, 남원, 송악산, 한라산, 차귀도, 1100고지, 협재 등 14개 주요 觀光地區를 개발하여⁷⁾ 3개 主要 據點觀光團地를 보완하여 國內外 관광수요에 대처하고 이를 통해 地域經濟基盤의 강화와

5) 金泰保, "濟州道 綜合開發의 發展의 補完 및 接近方案", 「太平洋時代에 있어서의 濟州-하와이 觀光開發協力方案의 摸索」, 濟州大 社會發展研究所, 1988, p. 110.

6) 濟州道, 「特定地域 濟州道綜合開發計劃: 觀光開發部門」, 1985, pp. 230~255.

7) 上掲書, pp. 256~274.

外貨收入의 증대를 가져오는데 두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

이와 같은 觀光主導型 地域開發은 觀光産業이 다른 지역에 대하여 比較優位의 입장에서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 基本産業으로 성장시켜 對中國과의 접근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競爭力을 갖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中國자체가 관광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中國 觀光地와 濟州觀光을 연결시켜 개발을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中國은 對外開放政策을 계속 확산시키면서 外國과의 交流増大를 위해 관광산업을 급속하게 성장시켜 왔는데 풍부한 觀光資源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觀光基礎設施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中國은 1985년 長期 2000年을 目標年度로 中·長期觀光事業振興計劃을 수립하여 ①관광사업발전을 國民經濟振興의 일환으로 수행, ②관광을 통한 中國國民과 세계국민과의 우호증진, ③관광사업진흥을 통한 外貨獲得을 위해 1990년까지 연간 500만명의 觀光客, 27~30억\$의 觀光收入, 2000년까지 800만명의 外國觀光客 80억\$을 목표로 하여 전국적으로 北京, 上海, 西安, 桂林, 杭州, 廣州, 海南島 등 7개 觀光開發重點地域을 지정하여 집중 개발하고, 공항 건설 등 교통망정비, 관광호텔건설, 관광안내원 양성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⁸⁾

21세기는 經濟的으로 太平洋經濟圈이 세계경제의 成長中心地가 되면서 太平洋時代가 전개되어 太平洋觀光의 時代가 도래할 可能性을 시사하고 있다.

濟州道가 太平洋經濟圈의 中心이 될 것에 대비하여 中國과의 主要 觀光地를 연결하는 太平洋 package tour의 공동개발계획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30여년 동안이나 外國人の 입국을 제한하여 선별적인 입국을 허용해오던 中國이 최근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요 국제관광시장에 대한 관광객 誘致活動에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임에 따라 中國旅行붐이 일어나면서 세계관광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中國 主要觀光地에의 접근 關門인 濟州道는 中國과의 觀光連繫開發을 통해 太平洋觀光時代의 主役으로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8) 韓國觀光公社 「觀光情報」 제214호, 1988. pp. 30~37.

또한 濟州道와 中國과의 經濟協力을 통해 共同開發을 모색할 수 있는 분야가 水産業分野이다. 濟州道는 四面의 바다로 되어 있으면서 寒流와 暖流의 교차로 풍부한 魚族資源을 보유하고 있어 開發潛在力이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바다資源이 자원약탈적 開發利用의 대상이 되면서 水産資源의 고갈, 어선세력의 미약, 어군탐지기, 방향탐지기 등의 現代的 漁船裝備의 부족 등에 水産業 發展이 정체되어 있다. 濟州道の 西南海伴과 接해 있는 中國과의 經濟協力關係가 발전되어 감에 따라 大韓海域의 확대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漁撈活動의 영역이 확대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濟州道 水産業 發展을 위한 漁船의 動力化, 現代化 및 大型化가 필요하고 무전기, 어군·방향탐지기, 레이더 등 漁船裝備의 現代化의 추진을 통해 地域經濟基盤을 강화토록 한다. 그리고 장래 자원고갈에 대비한 濟州道の 西南海岸을 중심으로 펼쳐 있는 大陸棚 제4 鑛區에 대한 개발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바다는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개척의 場이다. 2000년대는 海洋開發이 국력의 성쇠를 좌우하게 될 것이 확실하므로 해양개발에 대한 관심과 청사진을 마련하여야겠다.

끝으로 太平洋時代의 도래를 전제로 할 때 제주도의 空間上의 長期的 變化를 고려하여 自由地域 설치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1988년 12월 정식조인된 中·英間 홍콩반환협상에 따라 홍콩은 1997년에 中國主權에 완전 귀속된다. 물론 앞으로 50년간 홍콩은 현존 經濟體制를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世界金融市場 센터로의 기능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⁹⁾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이 點을 고려하여 經濟科學審議會가 중심이 되어 자유항설치에 대한 妥當性檢討 및 각 후보지의 立地에 관한 妥當性調查를 실시한 바 있다. 自由港의 입지조건으로 海運, 地政學的 位置, 항만, 背後地, 用水慰樂施設 및 空港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후보지에 대한 立地妥當性을 조사한 결과 제주도가 開發潛在力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特定地域 濟州道綜合開發計劃에서도 太平洋時代의 전개와

9) 金東成, 「前掲論文」, p. 24.

더불어 濟州道는 중국, 일본, 소련의 극동지역과 미국 등의 태평양국가들 연결하는 交叉路의 중심에 위치하며 아시아-太平洋地域의 關門으로서 역할할 수 있다고 보아 對中國關係의 개선 가능성은 희박하나 경제분야에서 실리주의에 입각하여 兩國家門의 접근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어 자유지역설치를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한국을 對外的으로 크게 부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자유지역설치가 적극 검토되다가 自由地域으로서의 발전가능성 불투명, 투자효과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에 의해 최종 계획수립 단계에서 보류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國內外 經濟秩序의 변화를 고려하여 볼 때 다시 한번 自由地域設置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VI. 展望 및 課題

1. 經濟的 側面

濟州地域經濟의 構造分析을 통해 볼 때 제주지역의 基本産業은 觀光産業, 農業, 水産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는 경제적으로 太平洋經濟圈이 세계경제의 成長中心地가 되면서 太平洋時代가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太平洋時代의 전개에 즈음하여 제주도와 中國과의 밀접한 關係下에서 濟州道の 開發方向은 中國의 주요관광지와 연계한 package tour program을 위한 관광개발, 水産業 및 大陸棚 개발, 自由地域導入 可能性의 檢討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의 제주지역개발의 基本方向을 이와 같이 설정할 때 제주지역개발은 閉鎖 및 內國化보다는 開放, 國際化의 성격을 더욱 두드러지게 띠게 될 것이다.¹⁾

1) 國土開發 研究院 「特定地域 濟州道綜合開發計劃：國際自由地域部門 報告書」, 1983, pp. 4~7.

제주지역개발은 1970년대초부터 觀光主導型 地域開發을 통해 內外國人 관광객을 위한 受容能力을 갖추므로써 지역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全體的으로 허약했던 濟州의 經濟的 基盤이 어느 정도 다져졌고 地域住民의 생활수준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地域開發事業을 추진하여 오는 과정에서 배태된 문제점도 많다. 더구나 濟州道의 開發方向을 開放, 國際化에 중점을 두는 경우 종래의 地域開發을 추진하여 오는 과정에서 開發與件의 변화, 개발의 目標 및 成果分配, 事業推進方法, 投資財源 확보 등에서 배태된 여러가지 問題點들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종래의 地域開發이 上向式開發이 아닌 下向式開發方式으로, 內發的 開發方法이 아닌 外發的 開發方法으로, 均衡開發이 아닌 不均衡開發方式인 據點開發方式으로 추진됨으로써 地域所得의 漏出問題, 개발의 均衡分散效果의 미흡, 地域住民들의 참여부진 및 투자부진, 道外人의 土地過多保有, 過剩開發에 따른 環境破壞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²⁾

이제 地方化時代를 맞이하여 濟州道를 對外指向的으로 國際社會에 開放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실시되었던 開發計劃에서 나타난 問題點들을 해결하여 보다 새로운 차원으로의 地域發展을 위해 보다 效率的이며 體系的인 개발을 위한 開發體制를 구축하는데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濟州地域開發은 종래의 發展目標과 開發方法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下向式開發에서 上向式開發로, 外發的 開發에서 內發的 開發로, 不均衡的 據點開發에서 均衡開發로, 均一性的 開發에서 地域性的 開發로 전환하여 새로운 發展目標과 開發方法으로 개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地域企業의 육성과 地方自治團體의 財政力을 강화시켜야 한다.³⁾ 지역 개발의 成敗는 地域經濟內的 경제주체로서 企業과 地方自治團體의 역할과 활동에 의해 좌우된다. 地域企業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地域住民의 모든 經濟·社會生活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地域企業

2) 金泰保, "濟州道綜合開發의 發展的 補完...", p. 113.

3) 上揭論文, pp. 117~118.

의 육성은 地域發展을 위한 大前提가 된다. 따라서 地方自治團體와 기타 公共機關들은 모든 行政力과 支援수단을 동원하여 영세한 地域企業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地方財政力과 地域經濟와는 相互有機的인 관계가 있는데 兩者間的 주고 받 는 相互作用을 통해 上乘的으로 성장할 수 있겠끔 地方財政力의 강화를 통해 地域發展을 유도한다. 地方財政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國稅와 地方稅 體系의 재조정, 새로운 稅源의 개발, 現行 地方稅制度를 개선하여 보완토록 한다.

둘째 濟州地域經濟基盤인 觀光產業과 地域 既存 產業과의 連繫性을 강화토록 한다. 지역발전의 戰略產業으로 觀光產業 중심의 開發은 그 自體 성장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國民經濟 성장이나 景氣에 취약한 일면도 있기 때문에 地域產業과의 연계하에 개발하도록 한다. 특히 觀光產業開發에 의한 農水產業, 工業, 建設業에 대한 產業聯關波及效果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⁴⁾ 점에서 觀光產業을 主軸으로 農水產業, 工業 및 建設業과의 連繫的인 統合이 이루어질 수 있는 產業의 均衡發展이 이루어져야 된다.

세계 제3 섹터의 도입과 地域開發基金의 效果的인 活用이 요구된다. 제주지역을 開放化, 國際化 시킴에 따라 대규모 團地, 대규모 景觀地區 등 大量滯在型의 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開發所要投資財源의 확보라 할 수 있다. 특히 道內 零細資本의 경우 그 투자대상사업이 收益性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投資의 妥當性의 기본요건이 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3섹터」의 도입이 필요하다.

「제3 섹터」란 국가 또는 地方自治團體와 民間의 共同投資로서 설립되는 株式會社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公共機關 등이 出資에 참여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地方政府, 公共機關, 民間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제3 섹터」는 綜合的인 地域開發計劃 및 管理機能을 발휘할 수 있는 機能이 되어 구성함이 바람직하므로 地方政府는 물론 有關機關과 民間이 株式比率를 나누어 投資技關

4) C. Gearing and W Swart, *Planning for Tourism Development*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6, p. 46.

로서 株主일 뿐 管理經營機關을 완전히 독립하여 운영한다.⁵⁾

이와 더불어 開發利益의 私有化로 社會分配的 正義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開發事業은 公營開發方式을 도입하여 開發利益을 地域開發基金(regional development fund)으로 환수하도록 한다.⁶⁾ 開發利益은 본래 地方自治團體가 地域開發事業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한 增價이므로 地方自治團體가 흡수하여 地域의 발전을 위하여 재투자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는데, 地域開發事業의 財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네째 앞으로의 濟州地域開發은 計劃과 開發의 주체가 地方自治團體가 되는 上向式開發(bottom-up approach)과 지역이부존하고있는 諸資源과 資本을 주로 활용하는 內發的 開發方法이 더욱 중시되는 方向에서 추진되어야 하겠다.⁷⁾

지금까지의 지역개발은 下向式開發方法(top-down approach)으로 추진됨으로써 開發 그 자체만을 생각하고 地域住民이 도외시되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이 지역개발이 下向式 開發方法으로 추진될 때 開發計劃과 方法이 체계적 一貫성과 우수성은 있으나 地域開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全國의인 차원의 波及效果에 치중한 나머지 地域的 宿願事業을 경시함으로써 상당수의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疎外感과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地方自治制 실시를 전제로 할 때 開發을 중국적으로는 地域住民의 요구내지는 基本需要를 충족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하여 濟州地域開發은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속에 진행되는 主體的 開發인 上向式 開發方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濟州地域開發은 上向式 開發方法으로 추진되는 것과 더불어 內發的 開發方法(development from within)을 더욱 강조하는 方向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濟州地域開發은 가장 잠재력이 큰 몇개의 지

5) 韓國産業開發研究院 特定地域 濟州道 綜合開發計劃 報告書, 1983, p. 245.

6) 金泰保, 濟州道綜合開發의 發展의 補完, p. 119.

7) 上揭論文, p. 116~117.

역을 대상으로 外部로부터의 資源의 流入과 支援을 통해 집중적인 투자에 의해 개발을 이루는 外發的 開發方法에 주로 의존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통해 창출된 附加價値를 크게 누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內發的 開發은 外發的 開發과 달리 지역의 賦存資源과 技術, 自立的인 財源의 투입에 의해 개발하는 것으로서 지역개발을 통해 유발되는 所得과 雇傭의 과급이 누출되지 않고 지역의 經濟循環에 再投入된다는 점에서 住民所得創出效果가 크게 나타난다.

끝으로 地域開發事業의 投資妥當性 分析 및 環境影響評價制度의 도입이 필요하다. 濟州地域開發計劃을 추진함에 있어서 開發管理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地域開發事業의 投資妥當性 分析을 사전에 거치도록 한다. 이는 地域開發事業의 效率性을 극대화하고 사업의 適格性을 판정하기 위하여 投資計劃事業의 技術的 經濟的 및 財務的 타당성에 대해 分析評價를 행하는 것이다. 또한 環境保全體系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環境影響評價制度도 도입토록 한다.

2. 社會文化的 側面

태평양 시대의 전개에 따라 제주도는 국제관광지와 국제무역항으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관광지로서 외래자본과 문화가 침투할 것이며, 관광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전통적인 공동체사회는 산업사회로 변모해 갈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구조적 성격의 변화에 의한 사회 문화의 변동과 외래문화와의 접촉에 의한 변화는 구분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고찰하려고 한다.

태평양시대의 전개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고도 산업사회로 발전해갈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기술, 자본, 인력의 교류와 함께 문화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외

래문화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빈부의 차가 커지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커질 것이며 공동체의식은 약화되갈 것이다.

또한 제주도 주민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인 절약과 검소, 협동정신과 상부상조, 평등의 가치관은 낭비와 사치, 개인주의와 지나친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로 변화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인간소의 현상이 점점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범죄와 도덕적 타락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며 인간성이 상실되가고 제주도의 미풍양속은 많이 없어져 갈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적인 것」과 제주도의 사회·문화의 특성은 점점 없어질 것이다. 제주인으로서의 正體性은 점차 약화되어서 正體性의 위기가 올 수 있으며 사람들은 불안과 갈등을 겪게 될 것이고 아노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사회가 다양하고 개방된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해갈 것이며, 외래문화를 주체적이고 선별적으로 수용한다면 제주도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개선에 따라 인적, 물적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문화교류도 이루어질 것이며, 중국의 사회주의 문화도 제주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자본주의 문화가 사회를 지배함으로써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지나친 경쟁심 조장, 공동체의식의 약화, 물질만능주의, 불평등의 문제 및 인간성의 상실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사회주의 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를 조화시킴으로서 우리 민족문화의 특징인 個와 숲을 조화시키는 和의 文化를 회복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원래 제주도 문화는 더불어 살려는 공동체의식과 평등의식이 강한 문화였다. 이러한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도 사회주의 문화로 부터 얻을 것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써 제주도 문화의 질을 높이고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지게 될 때 문화적 충격은 클 것이며 많은 갈등과 부작용이 따를 것이다. 전통적인 제주도의 사회·문화의 특성을 살리면서 주체성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며, 문화적으로 외래문화에 종속이 되지 않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